

“교회가 당면한 영적 위기, 새벽 대각성 집회로 돌파한다”

JAMA 중보기도컨퍼런스, 온라인 새벽 대각성집회 개최
 8월3일(월)부터 15일(토)까지 매일 새벽 5:30

지난 20년 동안 중보기도컨퍼런스를 통해 미국의 차세대 중보기도자들을 훈련시켜 온 JAMA(대표 강순영 목사)가 급변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새벽 대각성 집회로 열리는 올해 JAMA 중보기도컨퍼런스는 오는 8월 3일(월)부터 15일(토)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강순영 목사는 “코로나 사태로 3개월 이상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중단됨으로 성도들의 영적생활이 헤이해졌고, 교회 예배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긴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



기를 꺼려하는 상황”이라며 “교회가 당면한 영적 위기상황 속에서 이번 새벽 대각성 집회를 통해 새벽기도가 살아나고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개했다.

강 목사는 또 “올해 중보기도컨퍼런스는 합숙훈련이 어렵게 돼 참석을 원하는 교회와 개인이 공간의 제

약 없이 온라인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참가비가 없이 진행되는 만큼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해 훈련 받는 시간으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보기도컨퍼런스 감사로는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달리스중앙연합감리교회 이성철 목사, 필라안디옥교회 호성기 목사, 시카고 레

이뷰 언약교회 강민수 목사, 순복음 라스베가스교회 강일진 목사, 뉴저지 은혜채플 박반석 목사, 신경과 전문의 배성호 박사과 소아과 전문의 최순자 박사, 그리고 JAMA의 김춘근 교수와 강순영 목사가 나서 중보기도훈련을 겸한 새벽부흥회를 인도하게 된다.

JAMA는 매일 유튜브에 설교를

업로드할 예정이며 ipc.jamaglobal.com으로 참가신청을 하면 설교 강의 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다. 컨퍼런스 참가비는 없으며 후원 또는 헌금을 원할 경우 JAMA에 할 수 있다.

문의: 강순영 목사 310-995-3936 / JAMA 본부 903-804-4016
 김동욱 기자

남가주 한인교회, 교회 폐쇄 명령에 전면 온라인 예배 전환

부분적으로 현장예배를 재개했던 남가주 교회들은 지난 13일 내려진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의 교회 폐쇄 명령에 따라 웹사이트와 교회 SNS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둘러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공지하고 있다.

현장예배를 재개한 교회들은 그동안 발열 체크, 거리두기 좌석 배치, 손세정과 마스크 착용, 위생 시스템 구비 등 엄격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신중자에 한해서만 현장예배를 들여왔던 터라 주지사의 폐쇄 명령이 이렇지만 ‘일단 성도들

의 건강과 주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현장예배 시점을 미뤄온 교회들도 이번엔 내려진 행정명령을 보면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면서 현장 예배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열겠다’는 방침이다.

얼바인에 위치한 베델교회(담임 김한호 목사)는 “지난 한 달여간 베델교회는 10가지 방역 지침을 세우고 성도님과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현장예배를 드려왔으나, 캘리포니아 코

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에 따른 주정부의 지침을 따라 모든 예배와 사역을 당분간 현장예배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웨스트힐장로교회 오명찬 목사는 긴급 목회 서신을 통해 “세상의 어떤 공공장소보다 안전을 유지하며 단계적인 현장예배 재개를 통해 예배와 선교의 정상화를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왔으나, 종교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에 의거해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다”며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시금 잠정적으로 온라인으로만 드릴 수

밖에 없게 되어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무겁고 성도들께 송구한 마음 가득하다”고 밝혔다.

오 목사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드리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에서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영과 진리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며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더욱 회개하며 겸손하

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라고 권면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인랜드교회(담임 안 환 목사), LA 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한길교회(담임 박찬섭 목사),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등도 온라인 예배를 공지하며 SNS와 교회 웹을 통한 소통을 당부했다. 17일 현재 캘리포니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366,164명, 사망자는 7,475명이다.

김동욱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파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주님세운교회 새성전 이전 감사예배 드려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새 성전”

주님세운교회(담임목사 박성규)가 새성전(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으로 이전하고 지난 19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야외 예배로 드린 이날 예배에서 박성규 목사는 “주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왕상 8:27-30)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곳은 우리가 시간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이자 후손들에게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새 성전은 하나님의 눈과 귀와 관

심이 항상 머무는 곳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님세운교회는 전교인 구국 일천번제 온라인예배, 나라살리기 21일 특별장정기도회를 시작했으며 교회 실외친교실에 스크린 영상과 음향을 설치해 실외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주님세운교회 이날 신동훈 장로, 이종민 장로, 권오성 장로, 김두일 집사, 최윤진 집사, 오유니 권사, 김용복 장로, 이분자 장로, 김영훈 집사 등 새 성전 입당을 위해 헌신한 9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동욱 기자



주님세운교회 성전 이전감사예배

남가주온유한교회 10개 개척교회에 총 1만 달러 지원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한 사랑 나눔

지원대상: 장년 출석 30명 이하의 미자립교회와 설립 3년 미만의 개척교회

신청기간: 8월 1일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지원내용: 10개 교회에 \$1,000 1회 지급 (8월 3일 발송)

신청방법: www.onyouchurch.com 에서 온라인신청서 작성

Click Here 온라인 신청서

10개 교회에 1천달러씩 지원 개척교회를 돕는 개척교회

개척 3년째를 맞이한 남가주온유한교회(담임 장범원 목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주 한인교회들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미주 한인교회로 출석 교인 30명 이하의 미자립교회와 설립 3년 미만의 개척교회이며, 1차로 10개 교회를 선정해 1천 달러씩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일(토)까지며 교회 웹사이트 www.onyouchurch.com 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남가주온유한교회는 성도 수가 20여 명 남짓한 개척 교회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 교회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 장범원 목사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자 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셔서 2차, 3차로 지원이 이어지길 소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회는 2차 지원을 위한 후원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으며, 1만 달러가 모금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다. 후원 문의: 장범원 목사 626-833-7787

어번 필그림처치, 전 세계 음악인들과 ‘더 블레싱’ 노래

가수 김브라이언, 알리, 크리스 신부, 배우 고훈정 등 50여 명 참여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어번 필그림처치(Urban Pilgrims Church)가 전 세계 50여 명의 음악인들과 함께 ‘더 블레싱’(The Blessing)이란 콜라보레이션 찬양 영상을 제작했다. 찬양 영상에는 CCM 가수 김브라이언, ‘불후의 명곡’으로 친숙한 가수 알리, 유튜브 방송 ‘영국남자’에 자주 등장하는 성교회 크리스 신부, 힐송 유나이트 전임 베이스 연주자 오지해, 팬텀 싱어 우승 출신 뮤지컬 배우 고훈정, 브라질 차세대 워십 리더 다니엘 리슈티, 캐논 번주곡으로 알려진 유튜브 겸 기타리스트 임정현 등 영국, 뉴질랜드, 한국,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여러 지역의 크리스천 음악인들이 참여했다. 콜라보레이션 찬양을 기획한 어번 필그림처치 중민석 형제와 김경연 자매는 “한 지역이나 민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함께하길 원해 기획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이 축복의



전 세계 50여 명의 음악인들이 함께 부른 '더 블레싱'(The Blessing)

노래가 기독교인들과 세계인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어번 필그림 처치는 1.5세 및 한인 디아스포라를 찬양으로 섬겨온 제레미 박 목사가 지난 2월 개척한 교회로, 교회와 지역 사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사업에서 일정의 헌금을 정해 선교에 활용하는 B.A.M(Business As Mission) 선교 등을 실천하고 있다. 특별히 코로

나 기간, 미디어 사역을 통한 복음 전파에 사명감을 가지고 한인뿐만 아니라 다민족이 참여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편 ‘더 블레싱’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소재한 엘레베이션처치(Elevation Church) 워십팀이 3월에 발표한 곡으로 전체 가사에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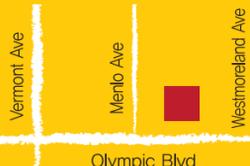
이동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치과 의사 이동희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세상이 바뀐 것 아냐... 새로운 세상이 조금 일찍 다가온 것일 뿐”

뉴처치 3주년 기념예배 교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빠른 전환 이뤄야 온라인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아트 디 스트릭에 위치한 뉴 처치 (New Church 담임 최순환 목사)는 지난 12일 개척 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남가주 청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했다.

2017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개척된 뉴처치는 밤거리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커피를 나눠주며 전도하고, 무작정 술집에 들어가 테이블마다 교회 로고가 그려진 라이터와 양초를 건네며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또 여름마다 청년들을 모아 미주 지역 횡단 선교를 진행하고, 빅토리 집회를 통해 남가주 지역 청년 복음화 또한 선도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 19로 인하여 진행된 온라인 영상 3주년 기념 예배에는 방송 목사(세리토스신교교회), 천관웅 목사(뉴사운드교회, 뉴제너레이션 대표), Charles Choe(Tapestry LA Church), 박철홍 목사(빌리버스 반석 위 교회, 월간목회 편집국장), 이요셉 목사(복음을 전하는 교회, 양떼 커뮤니티 대표, 코스타 강사)가 영상으로 축하했다.

한편 앞으로 뉴처치는 온라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로 전환해 청년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최순환 목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뉴처치 최순환 목사 ©기독일보

상이 조금 일찍 다가온 것뿐”이라며 “앞으로 지상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며, 뉴 처치는 온라인 예배뿐만이

아닌 온라인 교회로서의 사역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포도 스튜디오 형태의 상업용 건물로 이전한 뉴처치는 오

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 및 영상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교회가 어려워진 시기에도, 미리 준비한 영상 사역으로 안정된 목회를 펼쳐 나갈 수 있었다고.

뉴처치는 또 7월 5일부터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미국 시간뿐 아니라 한국 주일 시간대에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간 성도들을 위한 목양의 차원에서 시작된 스트리밍 서비스는 국제적인 청년 예배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뉴처치 온라인 예배는 미국은 서부 시간 기준으로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30분, 한국은 주일 오후 1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예배는 코로나 19로 아직 오픈하지 않았다.

김동욱 기자

미국 내 대학생 자살 한 해 1,100 여 명... 하루 3명 꼴



LA 온누리교회, 자살예방 정신건강 세미나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살 예방'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 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는 오는 24일(금) 오후 8시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법'이라는 주제로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으로 열리는 온라인 세미나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접속번호는 818-940-0208이다.

강사로는 페퍼다인대학교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예스터 박사를 초청했다.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이 박사는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 페퍼다인대학교에서 임

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UC버클리대학교에서 박사후 과정을 수료한 임상심리 전문가다. 이번 자살 예방 세미나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친구나 가족을 돕는 방법이나 혹은 자신이 죽음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이를 삶의 희망으로 돌이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자살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를 짚어 보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 등도 배울 수 있다.

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은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남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의 이론에 근거한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 등도 알려준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대학생을 기준으로 한 해에 약 1,100명 정도가 자살로 사망하는데 이는 하루 평균 세 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자살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최측은 강조했다.

LA 온누리교회는 “자살은 살인 사건이며 가까운 사람에게 발생한 자살 사건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운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후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 관련 내용은 웹사이트(yudogo.com)에서 얻을 수 있다.

ICE “F1 학생비자” 유지를 위한 오프라인(대면) 강의 California Arts University (실용음악, 클래식 음악)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아트 유니버시티(California Arts University) 캠퍼스

ICE(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7월 6일 온라인으로만 강의하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 하기로 했다고 발표함으로, 가족이나 COVID 19와 폭동 시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유학생인 수많은 학생들이 충격을 받고 불안해하고 있다.

ICE의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으로만 강의하는 대학의 유학생은 본국으로 되돌아가거나, 아니면 오프라인(대면) 강의를 하는 대학교로 전학하는 방법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야 F-1 비자 신분을 유지 수 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플러튼에 위치한 California Arts University는 음악대학 특성상 온라인과 오프라인(대면) 강의를 병행해 오고 있으며, 8월24일에 개강하는 가을학기도 ICE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오프라인(대면)강의를 실시하

므로 F-1 비자가 취소되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California Arts University는 실용음악과 클래식 음악 전공의 석사(Master of Arts)와, 박사(Doctor of Musical Arts) 학위를 수여하고 있으며, 특히 DMA(Doctor of Musical Arts)는 남가주에서 UCLA, USC에 이어 California Arts University가 주정부 및 연방교육국 인준을 받았다. 교수진은 전원 Ph.D와 D.M.A 학위를 가진 UCLA, USC, N. Texas 출신의 박사들이다.

또 미국 주류 대학교와 동일한 학위를 수여하면서도 학비는 아주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며, 특히 유학생들에게 각종 장학금 혜택을 수여하고 있다. 미연방 교육국(USDE), 미연방 대학평의회(CHEA), TRACS 정회원, 주정부 교육국 BPPE 인준을 모두 받았으며, 연방 국토안보국 SEVIS 인준으로 I-20 유학생 비자를 자체 발행하고 있다.

문의: www.cauniv.edu / (714)222-1110 or (213)700-7575 / info@cauniv.edu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66

“팔레스타인 SM(학생선교사)에게서 걸려 온 텔레그램 전화”

지난 주중에 필자의 교회에서 1년 전 파송한 대학생 선교사(SM)인 L 형제가 전화를 했다. 대학 2학년에 1년간 휴학을 하고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서 현재는 라말라라는 지역에서 8명의 팀원들과 전도를 하며 교회 개척사역을 하고 있다. 이제 1년이 되어서 7월 말에 미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L 군은 이민 2세여서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애써 목사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말을 하였다. 안부를 주고 받은 후 무슨 일인가를 물었을 때 그가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쓰겠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1년 동안 이곳에서 언어 공부를 하며 팔레스타인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주일예배 때 현지 친구들을 초대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행이 어려울 때는 전화와 인터넷으로 서로 교제하고 날마다 연락하며 지내요. 그런데 지금 교회도 생기고 친구들도 더 많아져서 그들에게 제가 아직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목사님 제가 6개월만 더 연장해서 사역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렸니?” “네. 부모님이 목사님께서 허락하시면 두분도 허락하신데요.” “알았어. 형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결정이면 그렇게 해. 교회가 알리고 계속 후원하고 기도할게.”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기도편지 쓸게요.”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필자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제 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안타까운 나머지 6개월 만이라도 더 했으면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있으라’ 하셨다 했다. 그 딸은 복귀하여 지금은 장기 선교를 꿈꾸며 준비하는 예비선교사로 선교단체의 미주 Youth Group의 디렉터로 그들을 인도하며 사역하고 있다.

대학생 시절 1년을 휴학하고 선교사로 나가 대학생 선교사로 보낸다는 것은 자녀들을 보낸 아버지의 마음과 또한 교회 청년들을 파송한 목회자의 마음으로도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 확신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6명째 파송한 L형제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연장 신청을 하는 용단을 내렸다. 인간적으로는 부모가 있고 안락한 삶의 터전과 공부하고 싶은 캠퍼스의 향수로 힘들 텐데도 그 땅의 현지 친구들의 영혼구원에 마음을 더 두어 자기의 평안을 뒤로 하는 결심을 다시 한다는 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교회는 연장하는 L 형제를 위해 선교후원금 6개월 연장 결정을 해야 하고, 기도팀도 동시에 6개월 연장을 해야 하겠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참 기쁨이요, 우리 교회의 행복이다.

필자의 두 딸들도 대학시절 각기 이라크와 이집트로 SM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 형제의 마음이 무언지를 대략 이해했다. 3년 전 이집트에서 사역하던 큰 딸이 1년이다 되는 무렵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영상 통화에서 6개월간 선교연장을 하겠다 했다. 아버지의 인간적 심정으로 솔직히 작은 딸이 6개월 먼저 나가고 이어서 큰 딸이 나간 터라 연거푸 딸들을 보내 염려도 되고 보고도 싶은 마음에 빨리 기간이 다 되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큰 아이가 연장하려는 말을 듣고 섬세해하면서 허락했던 때가 있었다. 이유는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언어도 익숙해지고 현지 친구들과 두터운 교제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같이 교회도 나오고 또 기도도 하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친구

한국교회는 2030년까지 선교사 파송 10만 명을 비전으로 두었다. 그 비전을 이루려면 남은 10년을 교회마다 학생 선교사부터 파송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들이 장차 전문 장기 선교사의 재목들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의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번 여름 미주에서 만 우리 선교회의 다민족 청년들 200여 명이 1년 혹은 2년 중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준비하고 있다. 7월 31일 엘리에서 역사적 파송식을 거행하려 한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면 열방의 문이 열릴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 주실 것이다.

♡ 점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6) 여유

여유를 가져라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유럽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책인 유포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는 영국 인본주의자들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최고 석학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유포피아”(1515-1516년)는 이성이 지배하는 이상적인 국가상을 묘사한 것으로 세계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또 “루터를 배격하는 헨리의 변명”(1523년)은 그가 가르쳤던 헨리 8세에 대한 강력한 옹호가 담긴 서적입니다. 헨리 8세의 칭찬과 지지를 받았습니니다.

그러나 그가 헨리 8세의 행위를 거듭해서 지적하자 왕은 분노합니다. 왕이 카타리나(Catharina) 왕비와의 이혼 허가를 요청하는 서류를 교황청에 제출하며 토마스 모어가 서명해 주기를 원했고 토마스 모어는 서명을 거부한 후 국왕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또한 그는 헨리 8세가 카타리나의 시녀였던 앤 볼린(Anne Boleyn) 사이에서 낳은 자식에게 후계 지위를 양도한다는 소위 왕위 계승 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며 왕에게 정면으로 맞섰을 때 그와 헨리 8세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1534년에 체포되어 런던탑에 갇혔고, 15개월 동안 옥중 생활을 하는 중에도 영국 교회에 대한 왕의 수장령에 서명을 요청하는 토마스 크롬웰(Thomas Cromwell)에게 침묵으로 반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 일로부터 꼭 5일 째 되는 날인 7월 6일, 마침내 그는 참수형을 받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당시 모어의 죽음은 유럽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자신의 죽음 앞에 보인 여유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자신을 위해 우는 자식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처형 명령을 내린 헨리 8세를 위해 죽어서도 기도하겠다고 말

하면서 사형집행인에게 농담을 건넵니다. 그는 사형집행관에게 ‘수염은 죄가 없으니 자르지 마시오!’라는 농담을 남겨 역사상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의 여유는 사형집행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여유를 배우고 싶습니다.

로라 월킨슨(22)은 시드니에서 열린 올림픽(2000년 9월) 대회 다이빙 10m 플랫폼 여자부에서 36년 만에 미국에 금메달을 안겨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진기자들은 중국이 메달을 ‘썩쓸이’할 것으로 보고 중국선수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금메달리스트의 화려한 연출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월킨슨은 예선 5위에 이어 준결승에서도 5위에 머물러 메달 가능성이 희박했고 중국들이 준결승까지 모두 1, 2위를 마크해 결승전 직전 월킨슨의 점수 차는 43점이나 벌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수차는 통상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각자 5번 다이빙을 하는 결승에서 월킨슨은 1, 2차에서 역시 5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3차에서 난이도 2.7짜리 리버스 다이빙을 수면에서 거의 물보라 없이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최고 점수를 기록한 이후 2차례를 더 1위에 오르며 우승을 차지해 당시 세계 다이빙 관계자들과 세계를 경

악시켰습니다.

월킨슨이 올림픽 다이빙 사상 가장 극적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투혼과 여유, 그리고 신앙의 힘 때문입니다. 7년간 체조를 하고도 기량이 늘지 않아 어머니의 권유로 16살 늦깎이로 다이빙에 입문한 ‘텍사스처녀’ 월킨슨은 올림픽 있는 해 3월에 연습 중 오른쪽 발이 세 군데나 부러지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연습에 지장을 받을까봐 올림픽 직후로 수술을 미뤘습니다. 발등 쪽으로 뼈가 불쑥 튀어나와 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약직전 미소를 머금은 채 마치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듯 관중석을 돌아보는 여유를 보여 주었습니다. 소름끼치는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그녀의 기량발휘에 도움이 되어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에게 친구가 방문했는데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상황을 무시하고 태연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커다란 물통을 들고 나타나 소크라테스 머리에 물을 쏟아 버립니다. 순식간에 뺨뺨을 당한 소크라테스는 수건으로 천천히 물을 닦아내며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너무 놀라지 말게. 천둥이 친 후에야는 반드시 소나기가 내리는 법이 라네.” 이 말에 친구는 손뼉을 치며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대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여유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마음의 여유가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행복이 보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행복이 살아 숨 쉬 수 있는 행복 생태계를 만듭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삶이 각박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여유를 갖고 행복을 추구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존김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성금!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성금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나라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사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코어와
필터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11) 학생자원선교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

사무엘 밀즈 그룹의 선교 열정은 프린스턴대학의 YMCA 지도책임자인 루터 위샤드(Luther D. Wishard)를 통해서 헐몬산 대학생 연합수련회로 이어진다. Wishard는 지구상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몇 천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하는데 선교의 영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광대한 규모의 선교대회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그의 헌신으로 1886년 7월에 무디 선생을 강사로 모시고 한달간 사경회를 열었고 이 사경회에서 100명이 선교헌신을 함으로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학생자원선교운동이 태동한다. 이 학생자원선교운동을 통해 이후 50년간 20,500명의 선교사가 해외(주로 아시아의 나라들)로 파송되어 선교의 황금기가 열렸고, 이 운동의 결과로 한국에도 많은 젊은 이들이 복음되고 찾아오게 된다.

루터 위샤드(Luther D. Wishard)
SVM을 태동시킨 헐몬산사경회를 준비했던 핵심인물은 당시 프린스턴 대학 YMCA 지도 책임자였던 루터 위샤드였다.

그는 윌리엄스대학 총장인 Mark Hopkins에게 1879년 전국학생대회에서 사무엘 밀즈 그룹 이야기를 말해 기독교학생들의 마음에 기도와 선교의 열정을 불러 일으켜 주도록 요청한다. 그는 또 윌리엄스대학 YMCA 회장인 Charles Ober를 만나 함께 눈 덮힌 건조터미기도회 기념비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헌신했다. 그후 두사람은 선교를 위한 대규모의 대학생 수련회를 준비한다.

무디의 캠브리지 대학집회의 대 회장이었던 J.E.K.Studd를 미국에 초청하여 미국 대학생들에게 '캠브리지 7인' 선교사의 이야기를 해주도록 요청했다. Studd의 방문은 미국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선교의 열정을 일깨운다.

루터 위샤드는 캠브리지대학 집회를 통해 수많은 대학생들을 선교에 관심을 갖게했고 또 캠브리지 7인을 헌신시킨 부흥사 무디를 강사로 헐몬산에서 대학생사경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Wishard와 Ober는 여러 대학을 방문해 학생들을 모였고, 7월 한달간 무디를 강사

로 대학생사경회가 열렸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89개 대학에서 251명의 학대표단들이 모였다.

주강사 DL 무디와 아더 피어슨(Arthur Pierson)

무디는 학력의 한계로 자신은 대학생 집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1876년 프린스턴 대학의 기도의 날에 총장으로 부터 강사초대를 받고 집회를 인도한 후 1878년 예일대학 집회, 1883년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대학의 집회를 인도했고, 1886년에 헐몬산 대학생사경회를 주강사로 초청되었다. 이 수련회가 SVM 운동의 시발점이 된다.

사경회 기간에 선교에 관심있는 자들의 기도회가 열렸다.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광고되자 많은 학생들이 모여 사경회는 선교의 영이 충만했다. 선교에의 강한 도전을 위해서 성경학자 이면서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의 편집자이자 선교 주창자인 아더 피어슨에게 선교강연을 부탁했다.

이 때 그의 설교제목은 "모든 사람이 가야하며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한다"(All should Go and Go to All)였다. 그의 설교와 함께 등장한 구호가 "우리 세대에 세계 복음화!"이었다.

사경회가 시작할 때에 선교헌신자가 6명 이었는데 마지막 집회까지 99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서명했다. 마지막으로 100번째 헌신자가 들어와 무릎을 꿇음으로 선교 헌신자가 100명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해외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했는데 이를 프린스턴 서약이라 불렀다.

중보기도를 했던 Robert Wilder와 Grace Wilder

그들의 부친이 인도에서 30년간 선교한 후에 은퇴하고 프린스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그 집에서 매주일 오후에 5명 정도가 모여서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무디를 강사로 헐몬산에서 대학생집회를 갖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들은 이 집회가 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라고 생각했다. Grace Wilder는 "이 집회가 강한 선교집회로 갈 것이고 이 집회

를 통해 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전 대학으로 기도모임이 확산되고 하나님께서 선교지원자 100명을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왔던 Robert Wilder는 헐몬산사경회의 중심역할을 했고 John Mott와 함께 SVM이 북미에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많은 대학들을 방문해 선교강연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선교에 헌신하게 했고,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나라들도 방문해서 SVM의 새로운 장을 열게 했다.

30년 이상 SVM 운동을 이끌었던 John Mott(1865-1955)

그는 코넬대학에서 역사학과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에 C.T.Studd의 형제인 J.E.K.Studd(그는 무디와 YMCA 초청을 받아 미국 대학들을 순회하면서 선교의 도전을 주고 있었다)를 통해 해외선교를 위해 자신들의 지위와 부를 포기한 '캠브리지 7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도 자신의 생애를 복음전파를 위해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헌신했다. 또한 무디를 주강사로 열렸던 헐몬산 수련회에 코넬대학 대표로 참석해 거기서 프린스턴 서약에 서명한 100인 중의 한사람으로 개인적으로 해외선교에 헌신하게 된다.

2년 후인 1888년에 John Mott를 발기인과 의장으로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이라는 슬로건 하에 해외선교를 위한 학생자원선교운동(SVM)이 결성되었는데 Mott는 의장으로, Wilder는 총무로 선임되었다. Mott와 Wilder는 함께 탁월한 리더십과 열정으로 30년 이상 이 운동을 이끌어 왔다. 그들의 리더십과 각 나라의 대학들을 방문했던 열매로 각 나라의 SVM 운동을 통해 1940년 까지 20,500명이 해외선교지로 떠났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그에게 1946년에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기도 했다. 그는 한국도 여러차례 방문 했는데 1907년 평양대부흥 기간에 60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장차 한국이 동양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 같은 격려를 전했다고 한다.

SVM 운동의 전성기와 몰락
SVM은 1888년에 결성된 후에 헐

몬산 사경회 5년 후인 1891년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제1차 국제학생선교대회가 열렸는데 32명의 선교회 대표들, 31명의 해외선교사들, 151개의 대학과 신학교를 대표하는 558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후 매 4년마다 1차세계대전 기간 한번을 제외하고는 대회가 빠짐 없이 열렸다. 1898년 까지 SVM이 839개의 대학에 확산되어 1173명이 53개 국가에 나갔고, 헐몬산 사경회 20주년이 되는 해인 1906년까지는 2953명의 자원자들이 100개의 선교단체를 통해 해외 선교지로 나갔다. 이 대회는 1920년 아이오와주의 데스 모이네스 대회에서 그 절정에 달했으며(6,890명 참석), 1940년 토론토 대회를 끝으로 50년간 20,500명이나 되는 선교사가 이 운동과 관련되어 파송되었다. 이 숫자는 예수님 이후에 파송되었던 모든 선교사들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수였다.

SVM 운동의 특징과 몰락의 원인

1. SVM은 학생 주도 선교운동이었다. 사무엘 밀즈 그룹은 미국에서 최초로 세계선교를 외쳤고 미국 최초의 해외선교회를 탄생시켰으며, 그들의 비전과 열정을 이어받아 "우리세대 세계복음화!"이라는 슬로건 하에 SVM이 생겨났고, SVM의 줄기에서 IVF, KSCF, SCF 등의 학생운동이 생겨났다.

2. SVM은 평신도 중심 선교운동이었다. 주강사였던 무디, 이 운동을 이끌어왔던 John Mott가 평신도였고, 프린스턴 서약에 싸인하고 나갔던 선교사들도 대부분 평신도 선교사들이었다.

3. 여성 참여가 두드러졌다. 1905년 까지 남성들이 SVM의 지도력을 점유했지만 여성들은 해외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의 다수를 점유했다. 본국에서는 교회의 사역이 남성들에 의해 독점 되었으나 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서기직 등이 여성들에게 개방되어 1920년 이후에는 여성선교사 수가 남성들을 훨씬 능가하였다.

4. SVM은 교회연합운동이었다. 에큐메니칼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SVM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컨퍼런스의 의장이 John Mott였다. 19세기 개인구원을 목표로했던 선교운동에 관한 반작용으로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은 전체구원, 사

회구원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5. 전도와 해외선교에 대한 헌신 등과 같은 본래적인 활동이 약화되고 대신 인종문제와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들을 강조하면서 기도도 약화되고 역동성도 생명력도 약화되기 시작했다.

6. 참가하는 학생들의 관심도 전도로 부터 이탈되어갔고, 해외선교에 관한 강조도 약화 되었지만 국내 전도는 더욱 관심 밖이었다.

이런 신학적 변질과 내부적 혼란으로 인해 선교대회는 생명력과 역동성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기쁨부으심도 사라져 점점 참가자들이 줄어들면서 SVM 운동은 1940년 토론토 대회를 마지막으로 아쉽게도 SVM 선교대회가 중단된다.

해외선교의 황금기를 구가 했던 SVM의 쇠퇴의 원인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고있다.

오늘날은 IVF가 SVM을 이어서 1947년부터 매 3년 마다 미국의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에서 'Urbana 대회'라는 이름으로 2만여명씩 모이고있다. 1888년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청년학생 선교동원을 위한 연합대회인 '선교한국'도 SVM 대회와 Urbana 대회의 영향을 받아 생긴 줄 안다. 세계 곳곳에서 SVM 대회, IVF 대회, 선교한국대회 같은 젊은이들의 선교대회가 다시 떠오르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한다.

*학생 자원 선교 운동 부분은 총신대 신대원 박영실 교수님의 글이 많이 인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강 순 영 목사
JAMA대표
청교도 이주 400주년
준비위원장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준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교사,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 대법원, 종교 사학에 “신앙에 따른 해고 정당”

미국 대법원이 카톨릭 학교들이 종교적인 사유로 교사를 해고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8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대법원이 8일 오전 발표한 판결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두 가톨릭 학교는 교사를 단순히 '세속적인 전문직 종사자(secular professionals)'가 아닌 '성직자(minister)'로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새뮤얼 엘리트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라렌스 토마스, 스티븐 브레이어, 엘레나 카간, 닐 고르수치, 브렛 케버노 대법관이 함께 참여한 법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엘리트 대법관은 2012년 대법원이 판결한 '행정 특례(ministrial expection)', 즉 종교에 따른 고용 결정에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한 특례



미 대법원 ©Pixabay

를 인용하여, 7대2로 학교측의 해임권을 인정했다.

엘리트 판사는 의견서에서 “종교 교육과 학생 구성은 대부분의

종교 사학들이 존재하는 바로 그 이유이다”며 “그러므로 학교들이 이 일을 위해 신뢰할만한 교사를 선발하고 감독하는 것은 그들의 핵

심적인 임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종교사학이 책임을 다하는 방식을 '사법적 심사(Judicial review)'로 다루는 것은 수

정헌법1조가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종교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의 시작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했으며 LA 대교구에 속한 '과달루페 사립 여학교(Our Lady of Guadalupe School)'와 '성 제임스 카톨릭 학교(St. James School)'가 재계약을 취소하자, 2명의 교사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교사들은 각각 '나이에 따른 차별'과 암 발병으로 인한 '신체 장애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측의 변호를 맡은 종교자유 법률회사 '벤키트'는 CP와의 지난 인터뷰에서 “재판관들이 면밀히 살피는 것은 이번엔 한 사건 보다는 앞으로 있을 사건에서 어떻게 원칙적으로 선을 그을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진 기자

박민찬 목사, ELCA 단독목회 25주년, 백인교회 목회 10주년 맞아



박민찬 목사의 25년 단독목회, 10년 담임목회, 결혼 3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독교일보



어드벤처루터란교회 담임목회 만 10주년 기념예배

조지아 남부 라그랜지에서 백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민찬 목사가 올해 7월, ELCA(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교단 목사로 사역한지 만 25주년, 현재 섬기는 어드벤처루터란교회 담임목회 만 10주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결혼 30주년을 맞아 성도들의 축하 가운데 뜻 깊은 주일을 보냈다.

어드벤처루터란교회 역시 Covid 19상황으로 4개월 가까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주일(6일), 교우 대표 14명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예배당에 모여 박민찬 목사의 뜻 깊은 시간을 축하하는 축복예식을 갖고 간단한 친교를 나눴다.

그는 “미국에서 단독목회 27년을 한결같이 지켜 주시고 단 한 주일도 쉬지 않고 주일예배를 인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 그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60년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단 한 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

라 육신은 점점 나약해지지만 영적인 눈은 밝혀 주셔서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영적인 교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습니다”라고 고백했다.

한편, 박민찬 목사는 1990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루터란 신학대학원(Luthera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기독교 석사, 신학 석사 및 기독교 교육학 석사 그리고 박사입문 과정을 마쳤다. 이후 1994년 뉴욕에서 담임목회를 시작으로 만 6년, 이후 애틀랜타에서 만 9년, 현재 교회에서 10년을 사역해 왔다.

이전의 뉴욕과 애틀랜타 목회는 교단의 적극적인 도움과 기도후원으로 한인들을 대상으로한 선교적인 목회했다면, 현재 교회는 미 남부의 전형적인 백인 교회로 자체성전을 보유하고 단독으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상황에서 박민찬 목사는 여러 명의 백인 목회자들과 함께 후보군으로 올라 풀타임 담임목회자로 최종 청빙받기까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박민찬 목사는 “목사는 ‘이제 남은 사역의 임기가 얼마

인지 인간적으로는 가능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목양을 이어가려 합니다. 단 한 순간도 부족한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렵고 힘든 난관 그리고 시험들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도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사랑에 마지막 남은 힘과 정성,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종이 되길 기도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앤더슨 기자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게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 Tel. (213)703-0240
For the Spirit & Body |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자 제임스 팩커 박사 별세



제임스 팩커 박사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제임스 팩커 박사(James Innell Packer)가 지난 17일 별세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향년 93세.

제임스 팩커 박사는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 Jones), 존 스토틀(John Stott) 박사와 함께 영국 복음주의 진영의 대표 신학자이자 성공회 목회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재직 중이었던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에 의해 공개됐다. 리젠트 칼리지 측은 "그는 보석과 같은 교직원이었다"면서 "그의 초점은 항상, 그리스도에게 있었다. 그는 매일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부상을 입었음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1925년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1944년 옥스퍼드 코퍼스 크리스티 칼리지에 입학해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공부하다, 신학으로 전공을 바꿔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1년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신학교수로 재직했다. 1979년부터는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Regent College)에서 조직 신학과 역사신학을 가르쳤으며, 명예교수에 올랐다.

4년 전 황반변성으로 실명 후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제임스 팩커 박사는 47여권의 책을 집필했다. 대표 저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비롯해 '인간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팩커의 절대 진리', '근본주의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기본

진리', '청교도 사상' 등이 있다. 영어 표준역 성경(English Standard Version Bible)과 ESV(English Standard Version) 스타디 바이블 편집자로도 참여했다.

제임스 팩커 박사는 평생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자신의 죄와 싸워 거룩과 회개에 이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성경의 권위를 수호하고자 노력했다.

제임스 팩커 박사는 존 칼빈과 영국 청교도의 저서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글은 대중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쓰여졌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Knowing God)이 한 예라 고 CT는 보도했다.

1973년 출간된 이 책은 백만부 이상 팔렸다.

남침례회 총회장 JD 그리어 목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읽은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이며 인생에 걸쳐 여러번 읽었던 책"이라며 "제임스 팩커 박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국 복음주의연맹 개빈 칼버 대표는 "제임스 팩커 박사는 큰 영향력을 끼친 거인이었다"면서 "그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님을 더 깊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 분과 그분의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했다. 선하고 충실한 종이었던 그가 평화롭게 안식할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은 1954년 결혼 한 아내 키트를 비롯해 세 자녀 룻, 나오미, 마틴 그리고 두 명의 손자가 있다. 이미경 기자

캘리포니아 페어링턴 목사, 주지사 예배 중단 명령 거부



데스티니 크리스천 처치 그렉 페어링턴 목사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Destiny Christian Church

수정헌법 1조 예배 자유와 권리 강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다시 실내 예배중단 명령을 내린데 대해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회 지도자가 종교 자유를 외치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크라멘토 외곽에 위치한 데스티니 크리스천처치(Destiny Christian Church) 그렉 페어링턴(Greg Fairrington) 목사는 주지사의 예배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어링턴 목사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지루한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밖에 없다"며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회는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봉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CDC(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의 방침을 따르며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페어링턴 목사 또 "목사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예배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13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30개 카운티에 속한 교회, 피트니스 센터, 미용실, 식당, 영화관, 박물관 등 실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장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LA 카운티를 포함해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새크라멘토, 벤츨라, 프레스노,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폐쇄 명령이 내려진 30개 카운티에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80%가 거주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후 7:00
평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수,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청년부/EM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기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언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son 교차)
T. (213) 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수, 금)
2부예배 오전 10:30 (토)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토)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O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수) 오전 5:30
리츠예배(델리예배) (소매별)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 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산타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00
종보기도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벨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금)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교유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교유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일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찬양찬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경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제물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금요일성경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9
T. (818)935-5887

MP제물 335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30
수요일 성경공부 목 7:45
588 Altos Ave., Monterey Park, CA 91753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9
T. (818)935-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 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쁘게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이동진 담임목사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성령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성소피아 성당 모스크 전환에 세계교회 비판 이어져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성소피아 대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전환된다.

1천 년간 동방정교회 본산이었던 터키 성소피아(Hagia Sophia)가 모스크로 전환되자 세계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 안에 반대와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동방정교회인 그리스와 러시아는 물론 세계교회협의회(WCC), 바티칸 교황청이 터키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고 유네스코는 즉각 성소피아의 세계문화유산 지위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0일 터키 최고행정법원은 성소피아를 박물관으로 사용하기로 한 1934년 터키 공화국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결정과 관련해 "성소피아 성역은 모스크로 규정됐고 그 외의 사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1934년 내각 결정은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슬람주의를 앞세운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집권 정의개발당(AKP)의 성소피아 모스크 전환 청원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세계교회협의회·교황청 "비탄과 실망" "매우 고통스러워"

이에 대해 세계교회협의회(WCC)는 11일(현지시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비탄스럽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터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종교계 간의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사우카 총무는 "성소피아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들에게 개방과 만남, 영감의 장소였다"면서 "성소피아를 다시 대립과 갈등의 초점과 장이 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소피아가 박물관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포용과 세속주의에 대한 터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상호이해와 존중,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오래된 적대감과 분열을 피하기 위해 성소피아의 모스크 전환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터키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2일 바티칸 베드

로 광장에서 열린 일요 삼종 기도회에서 성소피아에 대한 깊은 상심을 표현했다. 그는 "내 생각은 이스탄불에 가 있다"며 "성소피아를 생각하면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 외에 성소피아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그는 전날 세계교회협의회(WCC)가 터키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데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소피아가 모스크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방정교회 측도 강하게 반발했다.

동방정교회의 수장인 바르톨로메오스 1세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겸 세계총대주교는 "성소피아는 민족과 문화의 평화로운 공존과 대화, 기독교와 이슬람 간 상호이해와 연대를 의미하는 상징이자 장소였다"면서 "성소피아가 모스크로 전환될 경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이슬람에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러시아정교회 또한 "성소피아의 모스크 전환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정교회는 "우리는 종교인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 성소피아는 범기독교의 성지로 모스크 전환 결정이 내려진다면 정교회 신자에게 큰 슬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소피아 대성당은 326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하면서 건립되었으며 537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재건되었다. 15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제국에 함락되기 전까지 성소피아 대성당은 약 1천 년간 동방정교회의 본산이었다.

1453년 오스만제국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성소피아 대성당은 오스만제국의 황실 모스크로 개조됐다. 세계1차대전으로 오스만제국이 멸망한 후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아타튀르크는 1934년 강력한 세속주의를 앞세워 성소피아를 박물관으로 전환했다.

김근혜 기자

네덜란드, 5년 뒤 신분증에서 '남녀 성별' 사라진다



©Pexels/Tim Mossholder

네덜란드 정부가 신분증에서 남녀 성별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8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트루우(Trouw)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유럽연합 국가 중 독일에 이어 두번째다.

잉그리드 판 앵겔쇼번 교육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성별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LGBTQ+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말했다.

'LGBTQ+'는 성소수자를 뜻한 신조어로서 여자 동성애자인 레즈비언(lesbian), 남자 동성애자인 게이(gay), 양성애자인 바이섹슈얼(bisexual), 성전환자인 트랜스젠더(transgender), 성적체성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사람인 Queer 또는 Questioning 을 합친 말이다.

이어 그녀는 신분증에 성별을 기재하는 것이 "전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

에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발표에는 네덜란드 내에 수많은 '친'트랜스 단체(pro-trans organisations)들의 정치적 입김에 따른 것이라고 CT는 분석했다.

트루우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네덜란드 신분증에 한해 5년 후에 발표된다. 그러나 유럽연합 및 세계 항공규정에 따라 성별이 요구되는 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 앵겔쇼번 장관은 다른 EU 회원국의 지원이 충분할 경우 언젠가는 여권에서도 '남녀 성별 기재'가 삭제될지 바란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법원은 2018년부터 여권에 성 중립 표시를 인정해 남성(M)이나 여성(V) 표시 대신 'X'로 여권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동성애를 죄라고 할 경우, 차별금지법안 상 불법”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뉴스시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지적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설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3조가 규정한 금지대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전 재판관은 20일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일반 언론은 물론 기독교 방송·신문·소셜미디어에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된다(28·29조)”고도 했다.

이어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다(32조)”면서 “이는 언론이나 교육에서 동성애에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하여 동성애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동성애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 교리와 교회를 고립시키고 반기독교적 사회를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두고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교계에서는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전 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과 부정적 평가를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인격 발전과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방해하고 사상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것이라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형법은 미국 독일 등과 달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도 처벌한다”며 “차별금지법 도입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박원순 아들 박주신, 평소 교회 안다니는 아버지 안타까워 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10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미래한국) 온라인 홈페이지에 지난 2015년 10월 22일자로 올라온 ‘교회 선배 박주신 이야기’라는 글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박주신은 박 시장의 아들이다. 글의 부제는 ‘[秘話(비화)] 평범했던 청년 박주신과 나’. 글쓴이는 “내가 박주신을 알게 된 건 2011년 2월이다. 당시 그는 27살의 평범한 청년이었다.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 성경 공부반 리더로서 나를 지도했던 사람이 박주신이었다”고 그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삶의 본질에 대해 오랫동안 철학적 고민을 거듭한 경험이 있었다”며 “그는 인생에 대한 원초적인 고민 끝에 답을 찾았는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었다. 오랜 방황 끝에 기독교에 귀의한 박주신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내가 본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박주신이었다”고 했다.

또 “박주신은 신(神)을 늦게 영접한 것에 대해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아쉬워하는 만큼 그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 신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느껴질 정도였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특히 “나는 박주신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들었다. 그는 본인의 가족들 중 교회에 다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며 “박주신의 가족들은 비기독교 가정에서 그들 홀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모태신앙인 사람들을 대단히 부러워했고,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안타까워 했다. 박주신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반기독교적인 성향의 행보를 하는 박 시장의 모습은 그와 정반대다. 부자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마찰이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썼다. 김진영 기자



故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시스

교회는 소모임도 못하는데... 퀴어축제 강행

조직위 ‘방역당국 지침에 호응해 9월 18~29일’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양선우, 이하 조직위)가 한국퀴어영화제, 서울퀴어퍼레이드가 포함된 제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오는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일정이 변경된 바 있다”며 “이번에 확정된 일정 동안에도, 방역당국의 지침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광장 개최 여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광장 홈페이지의 ‘월간행사’ 9월 일정에는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없는 상태.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퀴어축제 속에서 서울시에 광장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때문에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광장 사용) 신고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즉 8월 말까지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9월까지도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히 상황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강행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원평 교수

(부산대, 동반연 운영위원장)는 “교회는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아예 폐쇄 조치 하고 있는데 (퀴어문화축제 개최는) 곤란한 것 같다”며 “서울시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퀴어축제를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도 “퀴어문화축제에는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가 온다. 해외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 (이번에도 그럴 경우) 해외 유입을 통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해외 입국자들이)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고 하지만 자가격리 후에도 무증상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또 “퀴어문화축제에서 과연 제대로 방역이 될까. ‘아웃팅’을 염려한 동성애자들이 QR코드를 제대로 찍을 지도 의문”이라며 “만일 퀴어축제를 강행한다면 QR코드로 참가자 명단을 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동선을 다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방역당국이) 교회엔 정구예배 말고는 모이지 말라고 해놓고, 퀴어축제를 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 역시 관내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처럼, 퀴어축제에도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남일에 드리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기주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애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행으로 활요 삼는 새생명체 교회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충만하게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일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회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김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5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애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말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 신하심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30(청년 영애)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애)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애)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르려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애)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여름학기 강의시간표

요일	시간	과목	교수
Mon	PM 7:00 - 9:00	설교학	Dr. Jong Kim
Tue	PM 7:00 - 9:00	로마서	Dr. James Lee
Wed	PM 8:30- 10:30	사무엘상,하	Dr. Timothy Song
Thu	PM 7:00 - 9:00	현대신학 II	Dr. David Lee
Fri	PM 8:30- 10:30	현대교회사	Dr. Daniel Min
Sat	PM 7:00 - 9:00	청교도 신학과 신앙	Dr. Elijah Kim
Sun	PM 7:00 - 9:00	조직신학 I	Dr. Elijah Kim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 신학학사과정 (B.Th) | 128 학점
- 목회학석사과정 (M.Div) | 96 학점
-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학위과정)*

개강일자 : 2020년 6월 22일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남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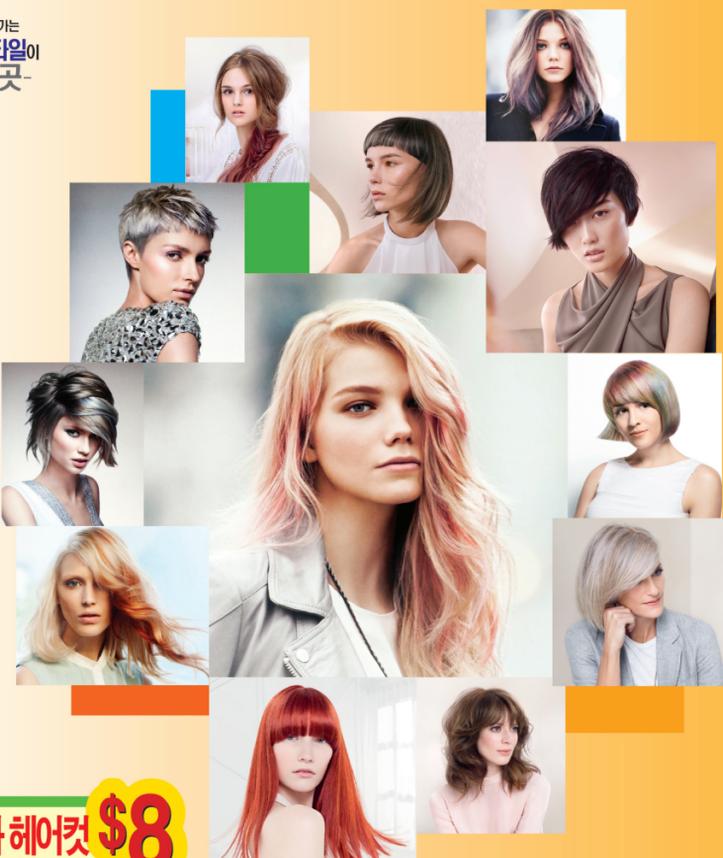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 스트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 간 중

김윤진 간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부르며 울었던 이유는..”

한성교회는 금요성령집회를 여러 명의 예배인도자가 돌아가며 인도한다. 그런데 유독 김윤진 간사가 집회를 인도하며 불렀던 찬양이 유튜브에서 1천만 조회수를 넘으며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 이것은 김윤진 간사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신앙에서 흘러 나오는 은혜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

김윤진 간사의 아버지는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한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고 듣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나 음악을 좋아하게 됐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교회 찬양팀을 하면서 노래하며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그녀는 노래하는 사람은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어린 시절부터 하면서 자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어 실용음악과에서 보컬을 전공하는 것이 꿈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CCM 활동도 하게 됐고 한성교회에서 예배인도 사역까지 하게 됐다.

그녀는 찬양 사역을 당연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찬양사역자를 배우자로 허락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건강에 이상이 와 병원에 다니게 되면서부터였다. 어느날 갑자기 ‘연축성 발성 장애’가 생겼다. 연축성 발성 장애란 뇌의 신경 이상으로 의지와 상관없이 성대가 불규칙하게 움직여 발성 시 떨림이 있고, 또 성대 근육을 조절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성대의 진동이 불규칙해져 목소리



결국 이루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잠시 찬양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김윤진 간사 ©한성교회

가 끊기고 말하기 힘들어지는 증상을 말한다.

김윤진 간사는 뇌 신경의 이상으로 지속해서 목소리에 이상이 생겼고 노래를 부르는 것뿐 아니라, 말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진 적이 있었다. 그녀는 약을 1년 이상 먹으며 부작용으로 우울감에 하루하루가 버거웠던 시간도 있었고, 복음을 중지하고 난 후엔 생각이 맑아졌지만 약으로 잠시 유지되었던 목의 상태는 다시 나빠지는 상황을 겪었다.

결국 치료비 때문에 남편은 사역을 내려놓고 회사에 다니기 시

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찬양할 이유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재정이나 주위 환경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찬양 사역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김윤진 간사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자신은 하고 싶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남편은 전공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도 아닌 회사에 들어가서 전혀 다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번은 남편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남편은 ‘안 힘들 수 없지. 하지만 여기서 나 노래하고 있고 예배하

고 있다’는 감동적인 말을 했다. 남편은 피치 못하게 교회를 떠나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게 된다고 했다.

그녀는 이런 일을 겪으며 자신의 가정이 가야 할 방향을 생각했다. 평생 예배인도자로 살다가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허락하신 만큼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김 간사는 영상의 댓글 등을 통해 감사하다는 리뷰를 많이 받는다. 노원구에 사는 한 지체장애인은 교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데 김윤진 간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렸다고 정말 고맙다고 전화를 했다. 그녀는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값없이 받은 은사를 더욱 값없이 나눠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찬양하면서 자주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 그녀는 3주에 한 번 준비하는 예배 인도인데 콘티가 뜻대로 잘 나오지 않아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한다. 그렇게 급하게 콘티를 마무리하고 준비가 부족해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섰는데 회중들을 보니까 정말 힘들게 예배에 온 것 같은 마음이 느껴졌다. 그 영혼이 다 힘 들어가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아파 보였다. 그러면서 회중의 마음이 그녀의 마음 안에 깊이 들어

왔다. 그녀는 그런 회중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소망으로 찬양을 나누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가 있어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금 찬양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찬양 사역을 내려놓을 것을 생각한다. 결국, 이루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잠시 찬양을 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녀는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선교를 나갈 수도 있고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찬양만 부르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녀는 어릴 때 받은 은혜도 소개했다. 김윤진 간사는 어머니의 나이 36세에 늦둥이로 태어나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컸다고 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힘들 때마다 항상 교회에 가시는 분이셨다. 교회든 친구집을 가든 그녀는 항상 어머니를 쫓아다녔다고. 어머니가 저녁 늦게 교회에 갈 때도 당연히 따라갔다. 거기서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해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잠을 잤다. 그러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흘리신 눈물이 뺨에 떨어져 잠에서 깬 때가 많았다고 한다.

잠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보니 온갖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왔다. 그때 들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찬송가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이다. 이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저녁마다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그저 하나님만 부르시면서 매어지는 목을 붙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겨냈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이겨냈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간증을 마쳤다.

(2019년 3월에 방송한 CBS ‘나를 살리는 찬송’의 영상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조성호 기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제목의 찬양을 부르며 울음을 터뜨린 김윤진 간사 ©한성교회 유튜브 영상 캡처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펙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림
- 옆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는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역,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빛레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신행 일치 신앙교육을

사무엘상 2:27-36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27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9 너희는 어찌하여...(중략)...네 두 아들 흡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적이 되리라 35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라 36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앞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가르침의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사는 진리에 입각하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달음을 얻어 생활의 신조로 실천해야 합니다. 교사가 실천으로 본을 보일 수 있을 때, 교사와 학생들 피차간에 유익을 주고 보람된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의 가장 좋은 교사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신앙교육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의 자녀 교육: 신앙교육

오늘은 본문의 핵심은 2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핏줄로 이어진 부모가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회개하여 믿어지는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구원을 얻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부모들은 이런 영적인 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제재를 가하지 아니합니다. 꾸중이나 벌이나 매질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버릇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하며 잘못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데 있어 시정각적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은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은 부모에게 받은 영향력이 그 인생의 66%를 차지한다는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생각, 말, 언어, 행동이 자녀들의 장래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 주는 것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영적인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살았다면 자식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부모가 자신의 신앙도 형편없는 주제에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판한다면, 이는 그 자녀로 하여금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지옥 길로 밀어 넣는 것이 됩니다. 이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고3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3이 되면 대학 진학을 앞두고 됩니다. 좀 더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는 부모의 욕심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녀를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의 장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세상 학업을 통해 얻어진 지식이나 기술로 아무리 다양한 전문자격증을 따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버리신다면 그는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실패한 신앙교육: 엘리제사장 가문

엘리제사장은 40년 세월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신정정치에 사자로 세워졌습니다. 그에게는 흡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삼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는 40년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의 자녀 교육은 전혀 신앙적이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키웠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성막에서도 행해졌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가져온 제물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먼저 심부름꾼을 시켜서 자기들이 취하고자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먼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다음에 가져가라고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억지로 빼앗아 가져가는 악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능멸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행위를 제사장이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22절 이후에 보면 흡니와 비느하스가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멸시했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해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양떼의 제사를 짓밟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종들까지 성적으로 짓밟아서 음란의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천벌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엘리의 반응이 23-24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이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엘리는 좋은 말로 타이르고 끝냅니다. 즉,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

땅히 자녀들로 하여금 그 모든 악한 행실을 완전히 회개함으로 중단시키고 거듭나도록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겼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5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제 회개할 기회도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2장 25절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흡니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회개치 않는 고집으로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3-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매질해서라도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녀들을 매질해서라도 회개시켰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형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 실패한 신앙교육의 결국: "이가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자식을 신앙과 영적 소망으로 교육 시키지 않은 죄 값으로 멸문을 당하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자 두 번째 전투에서는 법계를 매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계를 믿고 전쟁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이지 죄인들의 하나님은 되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패한 것은 물론이고 매고 나간 법계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이 전쟁으로 흡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도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만삭이 다 되었습니. 전쟁은 패했고, 법계도 빼앗겼고, 시숙과 남편은 전사했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에 뱃속에 있는 아기를 앞드려서 낳고 바로 죽어 갑니다.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로 아이의 이름을 "이가뵈"이라고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과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의 가문은 멸문패가를 당합니다.

그런 이후 3장 19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를 사무엘로 바꿔버리십니다. 사무엘은 크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엘리 가문이 패가멸문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들의 신앙교육을 너무나 등한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출세하게 하고, 세상 조건을 다 갖추게 하더라도 소용없습니.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면 결국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자녀교육의 초점을 신앙교육에 맞추십시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신앙생활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훈계해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때로 칠지라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매질을 하면, 그 뜻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후사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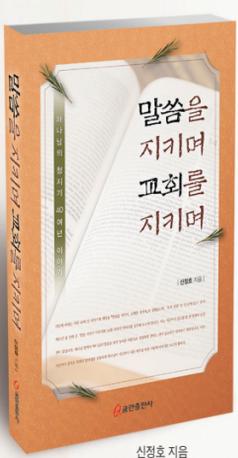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효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336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380면 / 15,000원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효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336면 / 13,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쿼란, 쿼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e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쿼란출판사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신화와 성경

그리스도인들,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



천년의 수업
김현
다산북스 | 316쪽

답은
틀릴 수 있지만
질문은
틀리지 않는다!

질문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문명의 근원
그리스 로마가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

‘질문하기를
멈춘다는 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노를 놓아버리는 일’
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스스로
묻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위기와
변화가 닥쳐도
자기 나름의 답을
찾아나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어난 아기는 울음소리로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한다. 울음으로 시작된 사람의 인생은 점점 물음표의 인생으로 변한다.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말을 시작한 아이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사람도 세상도 하나씩 알아간다. 질문은 아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며 살아간다.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의 작품에서 특이한 것 하나는 질문으로 독자에게 다가간다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 나온다.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들은 대부분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가는 삶을 산다.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질문은 네비게이션과 같다.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목적지 설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질문이 없다는 건 목적지 설정을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질문은 사람과 사람과도 연결해줄 뿐 아니라 역사와 사람을 연결해준다. <천년의 수업>은 질문을 통해서 문명의 근원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오늘날의 인간을 연결해주는 책이다.

저자인 김현 교수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로, <천년의 수업>에서 존재와 죽음, 자존과 행복, 타인과의 관계 등 아홉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삶에서 중요하다고 할 만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저자는 아홉 가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인들이 가치를 판단하는 3가지 질문을 소개한다. 이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수사학과 윤리학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 이전에 플라톤의 작품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첫째,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를 실용적인 판단 또는 경제적 판단이라고 한다. 둘째, ‘옳은가, 아니면 그른가?’라는 질문이다. 이때의 판단 기준은 윤리와 도덕이다. 셋째, ‘아름다운가, 추한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가장 그리스인다운 질문이다. 아름다움이란 인간이 가장 순수하게 추구하는 가치다. 실용적, 도덕적, 그리고 미학적 관점은 우리가 질문을 맞닥뜨릴 때 반드시 고려

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스인들이 가치판단을 위해 던졌던 3가지 질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용하다.

이제 아홉 가지 질문으로 들어가보자.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성찰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것인가? 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소크라테스와 소포클레스가 강조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

둘째, 인간답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다움에 대한 질문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의 무늬들이 모두 타지마할거나 앙코르와트 사원처럼 아름답거나 문학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난날을 후회하고 과거를 지우려고 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길을 만들며 어떤 자취를 남기고 갈 것인지를 꿈꿀 수 있는 힘으로 바꾸어 보라. 그것을 고민할 때 비로소 더욱 인간다워질 것이다.

셋째,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사는가?

오디세우스는 영원하고 평탄한 삶을 포기하고, 아프면서 고통스럽고 시시각각 고민에 휩싸이는 인간의 삶을 향해 스스로 뛰어 들었다.

그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지금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더욱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슬픔이 있기에 기쁨은 더욱 달콤하고, 고통이 있기에 성취의 보람도 커진다. 인생은 유한하며, 그로 인해 삶의 순간들이 빛난다. 모든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죽음이 사실은 모든 존재를 빛나게 만드는 셈이다.

넷째, 어떻게 살아야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을까?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삶이라고 기죽을 필요 없다. 지금 닦친 어려움도 훗날 나의 역사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견뎌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살아가는 힘이 된다.

그 믿음은 단순히 어려운 현실을 잊게 만드는 공허한 허구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창조적 힘

이 된다. 그러니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주인공임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세상의 한 조각으로서 나는 무엇일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그걸 딛고 일어설 힘을 낼 수 있는 때이다. 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시민의 힘은 강하다. 아무도 아닌 줄 알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단합하면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여섯째, 변화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의 쓸모와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어떤 양상으로 세계가 변하든 그 속에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새로운 세상에서도 자신의 삶을 잘 꾸릴 수 있다. 이제 정답을 맞히는 사람을 만들기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일곱째,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역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스 신화를 통해, 무엇이 세상을 변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 새로운 세대가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독교를 지닌 기성세대들은 다른 세대를 어떤 식으로 포용해야 하는지 얘기해 준다. 기존의 것 중에서 좋은 면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부분은 개선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

여덟째, 타인을 이해하는 일은 가능한가?

한 사람 안에 누적된 이야기는 곧 그 사람의 세계가 된다.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건 결국 같은 세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묶어주는 힘이 된다.

과거의 사건들을 그저 한때의 슬픔이나 기쁨으로 넘기는 대신,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의 지표로 삼을 때, 진짜 우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아홉째, 잘 적응하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

고전은 내가 아직 겪어보지 못했던 문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같은 고민을 우리보다 앞서서 했던 이들이 남긴 이야기를 읽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인생을 풍부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리더십 교육기관 CCL에서 119명의 성공한 글로벌 기업 사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성공하는 리더의 필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는 바로 ‘질문하는 능력’이었다.

인생을 그냥 걷기만 하면, 너무 많은 것을 놓친다. 자신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지 묻는 사람의 눈에는 또 다른 길이 보인다. 질문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넓은 세상이 보이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인 질문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사람들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에 이 부분을 이해하고 인간이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성경을 통해 제대로 대답해준다면 좋은 전도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본질에 대한 질문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바쁘게 살다 보면 늘 주객이 전도되기 쉽다. 본질을 잊고 부수적인 일에 시간을 쓰게 된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기적으로 본질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향후 10년간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교통, 교육 등에 배분하는 지침이 됩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어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으로 센서스 인구조사를 작성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드세요.

지금 인터넷

2020CENSUS.GOV/ko 에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